

# “범부가 보리심을 내면 자비 순풍 만난 것”

## 대만 국제중국불교도연합 권청 달라이라마 법회 8백 신도 참석

문순이 끝난 다람살라의 10월은 청명한 가을이다. 이러한 때에 대만을 거점으로 한 국제중국불교도연합(International Chinese Buddhist Community) 소속 신자 800여명이 북인도 산골 마을을 찾아 화제다. 기나긴 장마의 몸살로 길이 유실돼 일방통행이 돼 버린 티라 인상을 찌푸리는 교통 체증을 곳곳에서 감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도 중남부의 폭염을 피해 휴양 차 방문한 인파와 뒤섞여 다람살라는 연일 혼나물 시루다. 새벽 버스로 막 도착한 여행자들은 숙소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지난해와 달리 눈에 띄게 부쩍 오른 물가에 인도의 급속한 자본주의화를 실감하는 토론들이 오간다.

반면 다람살라 남갈사원 내부 쯤라강(Tsulagkang)은 고요하고 평화롭기 그지없다. 새벽별이 그 모습을 미처 숨기지 못한 시각, 사원은 경문을 읊으며 오체투지를 올리는 참회와 발원의 기도들로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붓다의 법과 논자들의 지식으로 갈애를 타파하는 때문에 흥이 난 붉은 승복의 티베트 승려들, 마니차를 돌리며 연신 ‘옴나미빠메훴’ 진언을 외는 어르신들, 지혜를 구하는 범부는 항시 정법에 목이 마른 법. 선지식이 머무는 곳을 찾은 세계 각국의 선제들은 우슬착지하고 합장해 공경하며, 스승인 14대 달라이라마(덴진가초, 77)를 향해 삼배의 예의를 갖춘다.



달라이라마는 법회에서 “발심을 일으킨 범부가 보리심을 지닌 것은 자비로 향하는 순풍을 만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 “보리심은 자비심에 근간 뒀야” 강조

“일체지를 성취하고자 하는 수행자가 객진번뇌를 청정히 하고자 하는 일념(一念)으로 결제를 해야 하건만, ‘달라이라마’라는 이름 덕에 연일 바빠 수행할 겨를이 없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둘러대기만 합니다. 어느새 수행기 어려운 노인이 되었는데 스스로가 게으른 탓에 깨달음의 성취를 잠시 미루기만 하지요.”

자신을 대중 앞에 기꺼이 내려놓는 스승의 모습을 보니, 현자의 겸손한 미소가 머문다. 달라이라마는 나이 서른에 공성(空性)에 눈을 떴다. 그의 일념은 일승(一乘)을 향한다. 번뇌에 꼬달리는 중생이 머무는 곳으로 여든을 앞둔 노장의 발길은 씩 없이 이어진다.

나(我)를 움켜쥐고 살아가는 무명의 잔가지들을 쳐 내고, 사랑과 자비로 보듬을 수만 있다면 그곳이 굳이 법당이 아니어도 여의지 않는 그다. 여태까지 합법적인 초청 절차에도 불구하고 달라이라마의 방문이 성사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기야 남아프리카에서 달라이라마의 오랜 벗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81·자국 내 인종차별에 대한 1984년 노벨평화상 수상) 일행이 지난 해 티베트 민중봉기 기념일 즈음 맞춰 다람살라를 방문해 화제를 불러 모았다. 뿐만 아니라 매년 10월이면 한국 불자들의 요청으로 다람살라에서 법회가 열린다. 올해 범부는 용수보살의(중신) 24품을 주제로 10월 29일부터 사흘간 다람살라 중심 사원인 쯤라강에서 개최된다.

달라이라마는 “중생의 삼독심 모두가 ‘무시 이래

의 습(習)’에 의한 것이기에, 선한 인연을 만나 발심을 깨울 수 있다면, 기꺼이 보리심의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더불어 “보리심은 삼귀의가 아닌 자비심에 근간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다른 이름의 ‘아제야제 바라야제 바라승 아제 모지스바하’ 일 것이다.

### 숙넨, 티베트 불교 사탄으로 정의

“도제 숙넨(Dor-je Shug-den)을 따르는 이들은 나의 법제자가 될 수 없다.”

법회 마지막 날, 관정법회를 앞두고 달라이라마는 우바새·우바이 계를 받고자 합장 공경의 자세로 무릎을 꿇은 대중들에게 단언했다.

티베트불교의 어둠으로 표현되는 숙넨,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인 전체의 1%가 아직도 숙넨을 추종하고 상당수가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대 달라이라마(나왕롭상가초, 1617-1682) 당시, 숙넨은 겔룩파의 덕망 높은 수행자였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 영혼을 숭배하는 신앙으로 변질돼 급기야 티베트불교의 사탄으로 정의되고 있다.

숙넨과 그의 추종자들은 현재 티베트불교의 연중



남인도 문곳 티베트불교 사원군에 있는 숙넨사원. 달라이라마의 종관법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원의 정문은 항시 굳게 잠겨 있었다.



국제중국불교도연합 소속 불자들의 권청으로 아미타존자의 <보리도등론>을 주제로 달라이라마의 법회가 열렸다.

으로 비추지고 있다. 달라이라마는 5대 달라이라마의 자서전 가운데서 ‘악한 욕망에 맹세한 악령, 도제 숙넨’의 구절을 찾은 이후, 한동안 그를 추모하는 기도를 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인도 간덴 사원의 장제대학에서 숙넨과 겔룩파 학생들 간의 유혈 충돌이 일어났다.

숙넨의 문제가 티베트불교의 현안으로 불어졌 때는 1998년 다람살라에 위치한 사라대학의 교장이 숙넨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부터다. 살해 동기는 숙넨을 비방하고 그들의 신앙 활동을 금지했다는 이유였다.

티베트불교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강조한다. 인도 나란다 승원의 학제 방식을 전승한 이유다. 현교를 밀교의 사다리로 삼으며 두루 아울러 수행하는 방식은 한국불교와 상당히 밀접하다. 한국의 무문관 수행법보다 더욱 철저한 독빠가규(Drupa Kagyu)의 수행 체계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 모든 티베트불교 수행의 중심에는 철저한 갈마로서 스승에 의지한다.

숙넨은 불교의 정진과 교리를 훼손했다는 것이 달라이라마의 입장이다. 붓다와 붓다의 가르침 그리고 승가 공동체에 귀의하는 불교는 영혼에 대한 숭배를

이라는 말을 실제 거론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며 숙넨 신자를 외형상 분별하기도 어렵다. 혹자는 한국에 티베트불교의 이면이 잘못 전해질까 같은 우려심을 보이기도 했다.

달라이라마의 독일 법문 당시 숙넨 추종자들이 ‘달라이라마는 가면을 벗어라.’, ‘달라이라마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가두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당시 달라이라마는 관련 인물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해당 단체를 방문하고자 했으나 이렇다 할 답변도 없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 당했다.

관정을 마무리하며 달라이라마는 다시 한 번 숙넨을 언급했다. “오늘 관정으로서 비법 안에서 고통을 받아온 이들이 원치 않는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고 부디 정법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 티베트인에게 불교는 삶의 근원

“자신의 종교를 검증하십시오.”

달라이라마는, “마치 연금술사가 금을 다루듯이 진리 또한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의심을 일으켜 연마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로서 자신을 다스리는 계율을 청정히 지키게 되며 정념을 토대로 할지 알 아치림에 충실해질 수 있다. 무아(無我)로서 무상(無常)을 보는 원리다.

인아(人我)의 아집이 만들어내는 윤회의 속박에서 과연 보복가리(我)는 무지와 무명의 공화(空華)가 지닌 실상을 찾아 낼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겉의 시간 동안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상호 의존하는 연기를 본 지혜로서 대처해 환멸해 나갈 수 있다. 연기하기에 공(空)함을 알아 자비심을 일으키니 이것이 바로 발보리심이다.

불교적 과학, 윤리학, 정신분석학 등 현대 과학과 의학 분야의 통섭을 시도해 온 달라이라마. 그는 21세기 불자의 자세를 항시 강조해왔다. 티베트인들에게 종교란 문화이자 그들 본연의 삶이라는 것이 티베트불교를 정의하는 가장 쉬운 말일 것이다. 한국의 문화는 박물관에 표본화 되어있는 반면, 티베트 문화는 불교로서 티베트인들의 일상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티베트불교의 어둠의 자식이 되어 버린 숙넨 역시 5대 달라이라마가 시도했던 진보주의의 지향적 불교가 역으로 파생시킨 암암으로 티베트불교가 풀어야 할 과제다.

범부의 현실은 괴롭다. 행복을 원하지만 그만큼 충족되지 않는 듯 여겨진다. 붓다의 정법 또한 쇠약해져 가고 있다고 말한다. 물질주의가 초래한 욕망의 비대화에 따른 진리가 퇴색되었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진리는 그대로인데 번뇌에 물든 나의 마음이 그렇다고 여기는 것일 뿐.

달라이라마의 기도에는 항상 티베트인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말씀이 담겨있다. 중국의 자치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신공양(10월 초까지 52명이 분신했다) 사태에 대해 정진적 지도자는 발언을 아끼고 있다. 인도의 가장 오래된 투숙객이라고 스스로를 호칭하는 달라이라마는 오늘도 중생을 일깨운다.

“단지 나의 이름이 달라이라마일 뿐, 숙명으로서 이성에 짙어진 허공과 같은 인연으로 부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연기의 도리로서 깨달음에 이르기를.”

인도 다람살라= 기연승 통신문 omflower@gagyo.org

#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으면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기우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건봉사 만일염불회 기도 입재

만일염불회는 서기 758년 발징화상께서 정신, 양순스님 등을 통하여 1만일(27년 5개월) 동안 염불수행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행복한 삶을 위하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할 것을 기원하는 법회를 하였는데 만일이 되어 회향하는 날 기도에 동참했던 스님 31인이 건봉사를 중심으로 1.5km 지점까지 허공위로 날아가 육신은 땅에 버리고 정신은 서방정토에 극락왕생한 이적을 남기셨던 염불대법회로써 금강산 건봉사에서는 이 기도법회를 다시 재현하고자 정현 주지스님께서 직접 기도하시는 전국 만일염불회를 다음과 같이 입재합니다.

## ◀ 만일염불회 3년 기도안내 ▶

- ◇ 입재 : 2012년 11월 28일(음,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 ◇ 회향 : 2015년 11월 26일(음,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 장소 :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만일염불원
- ◇ 기도동참금 : 한 가족당 백만원(분납가능)
- ◇ 계좌번호 : 농협 247-01-251767 예금주 건봉사
- ◇ 접수 : 건봉사 중무소 (전화 033-682-8100 팩스 033-682-5994)
- ◇ 매월 2주, 4주 토요일 철야 기도정진



매일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만일염불 기도소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치아사리 봉안사찰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